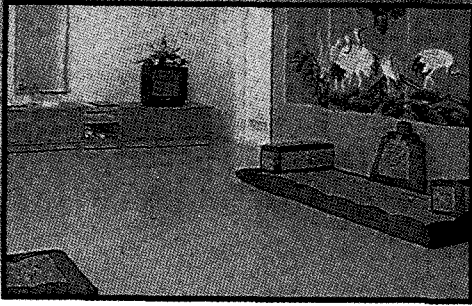


# 건강주택 황토방의 전성시대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 기능을 강조한 아파트가 관심상품으로 등장하면서 이른바 “황토방 바람”이 불고 있다.

건강주택은 이미 작년에 황토방 바이오세라믹 온돌방 등이 선을 보이면서 소비자의 눈길을 끌었다.

연전에 증보된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ONDOL”이라는 새 어휘가 수록돼 있다. …한국에서 주로 쓰이고 있다…한국이 중주국이요 한반도 밖으로 흘러간 적이 없는 이 온돌이 서독,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알프스 북부지방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다. 특히 새로 짓는 고급주택일수록 온돌방이 있어야 하는 것이 조건으로 돼 있을 지경이다.

「…지금은 너도 나도 서구식을 따르고 있지만 우리조상들이 남긴 주택문화는 세계에 자랑할만 하다. 무엇보다 침실, 거실, 응접실, 서재, 식당 등 다용도로 이용된 온돌방의 구조는 과거 살림살이나 기후조건으로 볼때 선인들의 탁월한 지혜의 산물이 아닐

수 없다.」

## 고급주택일수록 온돌방 구조 원해

올해는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아파트 벽체까지 나올 전망이다.

작년에 인기를 끌었던 아파트 내부의 황토방시공은 건강아파트의 대표격. 황토방은 아파트 침실이나 거실 내부의 철근 콘크리트 바닥위에 황토를 깔아 전통생활을 재현한다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인체에 유익한 원적외선을 방출, 냄새 및 습기를 줄일 수 있는데다 복사에너지를 발생시켜 난방비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업체들은 밝히고 있다.

지난해 본격적으로 황토방아파트를 공급, 인기를 끌었던 대동건설은 6월중 양산물금에 1천2백56가구를 분양중이며 앞으로 서울 평창동 빌라 19가구(6월), 상계동 3백58가구(6월), 거여동 3백가구(6월), 상도동 98가구(8월) 등촌동, 진주, 가좌, 김해 장유에

각각 분양할 계획이다.

청구아파트는 바이오 벽지와 바이오 생광석을 적용해 인기를 끌고 있다.

청구는 지난해 시흥 연성지구 4백78가구를 분양하면서 원하는 가구에 한해 바이오세라믹 온돌방을 공급했다.

바이오세라믹 온돌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유익한 광선인 원적외선을 방출해 에너지절감지자기(地磁氣)보강, 신진대사 촉진, 악취제거 유해파 차단 등의 효과가 있다고 청구측은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습도조절기능을 가진 벽체개발을 추진 중이다.

아파트는 환기와 습도에서 다른 주거형태보다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데 착안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95년말부터 거실벽에 환기구멍을 만들어 자연환기가 되도록 해왔다. 다른 건설업체들도 어항이나 분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해 습도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공간이 늘어나는데다 물관리의 번거로움으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

대우는 우리 전통가옥에 흙벽돌리(황토방)를 이용, 아예 벽체를 습도조절 재질로 만들기로 했다.

경기도 분당에 사는 주부 강순임(38)은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에 시부모님께 황토침대를 선물했다. 강씨 부부는 4년전부터 남편 형제들과 함께 매달 약간의 돈을 모아 시부모님에게 해외여행을 시켜 드리려고 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어디선가 흙침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해외여행 대신 침대를 사달라고 했다. 강씨는 침대가격이 예상보다 비싼 것에 놀랐지만 연로한 부모에게 여행보다 건강을 선물하는 것이 효도라는 생각으로 황토침대를 구입했다.

열흘 남짓 지났지만 시부모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개운하고 따뜻한 침대에 누워 있으면 옛날 생각도 난다고 좋아해서 옆에서 보기도 흐뭇하다고 한다.

황토침대는 전기로 데우며 한달 전기료는 2만원 정도, 아직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이씨나 강씨처럼 어

“  
사람들은 교통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전원생활을  
선택하게 되었고,  
좀 더 자연과 친숙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직접  
흙으로 집을 짓거나  
시공업체를 통해  
황토집을 짓고 있다.  
”

버이날 효도선물로 침대, 베게, 보료등 각종 황토용품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한 황토바람은 이제 대중화 되는 추세이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주)대동주택은 지방 아파트 분양률 저조속에서도 최근 마산시와 강원도 횡성에 건설한 아파트 청약률 90%를 기록했고 5월17일 개원한 영림한방병원(서울 강남구 역삼동)은 일곱개 입원실의 벽과 천장 침대까지 황토로 마감했다.

“황토요법”의 저자 이원섭씨(63)는 최근의 황토 열풍은 “공해에 찌든 현대인의 자연스러운 자연회기현상”이라고 지적한다. “황토는 탁월한 해독기능으로 옛날부터 의약재와 건축자재로 사용돼 왔던 소재입니다. 하지만, 1960~1970년대 급속히 진행되던 산업화 속에서 황토는 우리주변에서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시멘트와 콘크리트에게 그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편리하고 깨끗해 보이는 시멘트에는 라돈이라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라돈에 오래 노출될 경우 면역력이 떨어져 몸이 빨리 피로를 느끼게 되고 그 피로를 제대로 풀지 못해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또 17년간 황토를 연구해온 박우현씨(경상대 화학과. 55)는 “향후 주택의 개념은 어디에 사느냐 보다는 어떤 자재를 쓴 집에 사는냐에 큰 비중을 둘 것”이라고 말한다.

“황토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 황토의 품질은 세계적인 수준이라 그 쓰임새가 더욱 다채로울 겁니다.”

건강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화됨에 따라 주택에도 그 변화가 찾아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90년대에 들어 의식주 모두에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마인드가 확산되면서 무엇이든 양적 팽창보다는 질을 추구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교통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전원생활을 선택하게 되었고, 좀 더 자연과 친숙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직접 흙으로 집을 짓거나 시공업체를 통해 황토집을 짓고 있다.

그렇다면 황토는 보통 흙과 어떻게 다른가.

말대로라면 황토는 누런 흙이라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가장 최상 품질의 황토는 진한 주황색, 거의 붉은색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우리가 쉽게 황토라고 생각할 수 있는 흙은 우선 농약을 쳐 본적이 없는 햇벌이 잘 드는 땅의 흙이다. 그리고 흙도 지방에 따라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황토집을 지으려고 할 경우 전문업체나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자원 넘어 자궁암과 유방암 발병률 적어

황토는 보통 흙보다 게르마늄 등 각종 특수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흙, 생명의 흙이라고 불린다.

황토는 또 원적외선 효과가 보통 흙보다 뛰어나 일반 흙보다 인체에 더 깊숙이 침투해 효과를 배로 높일 수가 있다.

황토전문가들은 전통아궁이(구들, 온돌-다음호에서 특집으로 다룰 계획)에서 원적외선 효과를 알 수 있다고 한다.

예전 우리 어머니들은 황토를 개서 만든 아궁이 앞에 앉아 일을 했다. 황토아궁이가 불에 달구어지

면서 뿜어내는 원적외선이 가슴과 하체에 집중적으로 투사됐다.

그래서 자궁암과 유방암의 발병률이 지금보다 현저히 적었다는 것이다.

또 황토집이나 구들장만 황토를 간 황토방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답하는 부분이 빠른 피로 회복이다.

예전 농부들이 하루 종일 논밭에서 고단하게 일하고도 다음날 거뜬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황토방에서 잤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특히 몸이 유난히 피곤하고 나른할 때는 황토방의 효과가 높다.

황토를 소재로 하는 제품들이 하나둘씩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진엔지니어링”(주)녹림, (주)생활토, 메산전자, 고려CK같은 황토생활용품 업체들은 황토 구들장, 침대, 보료, 베게, 방석, 고기구이판, 비누, 미용팩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황토 생활용품 업체들은 대부분 본사나 대리점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다.

이중 황토 구들장은 집전체를 황토로 짓기 어려운 경우에 싼 가격으로 황토효과를 느낄 수 있어 문의가 쇄도한다고 한다.

대부분 나이 든 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나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도시생활에 지쳐 향수를 달래고자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

백화점에서 흙침대를 판매하는 김상태씨(38)는 침대가 수백만원대의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고객은 거의 4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이며 광고보다는 입소문으로 알고 찾아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손님들이 처음엔 가격을 보고 놀라다가도 막상 사용한 분들이 효과를 보고는 친구분들을 데리고 오곤 합니다.”

현재 짓고 있는 황토방은 화강암 구들위에 백시멘



트를 약간 섞은 황토를 바르는 방식과 흑운모 위에 황토를 바르는 방식. 이 두가지로 나뉜다.

백시멘트를 섞는 것은 접착력을 높여 시공을 쉽게 하기 위함이다.

또 옛날 왕실이나 사대부집에서 사용했다는 흑운모는 앞으로 시공될 개량형 아파트에 보급될 예정이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된 것 같다.

시멘트와 콘크리트, 유리로 깔끔하고 예쁘게 지은 집이 보긴 좋지만 우리 몸엔 독이 된다.

대부분의 도시인들이 살고 있는 현대식 집들은 시멘트, 유리, 철근으로 이루어져 흙과는 달리 자체의 통기성이나 흡습성이 없어 항상 실내공기가 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통, 호흡곤란, 불면증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나 투박하고 약간은 어설픈 황토집은 자연통

“  
먹고 입는 것 말고도 이제는 살아가는 것에도 건강을 생각할때다.

그런점에서 황토바람은 공해에 지친 현대인들을 인공적인 것에서 자연적인 것으로, 고품의 품속으로 이끌어 주는 역할을 특특히 할 것이다.

이렇듯 흙을 살리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황토방의 보급을 위해 다같이 노력하자.

”  
풍이 잘 돼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다. 그리고 습도조절과 환기가 저절로 되기 때문에 감기 같은 질병에도 잘 견디게 해준다.

먹고 입는 것 말고도 이제는 살아가는 것에도 건강을 생각할 때다.

그런점에서 황토바람은 공해에 지친 현대인들을

인공적인 것에서 자연적인 것으로 또 고향으로 이끌어 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 주고 있다.

## 먹고 입는 것 말고도 살아가는 것에도 건강을 생각

황토는 물질을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효과가 있는 생명광선이라고 불리는 원적외선을 대량으로 흡수·방출한다.

원적외선의 한파장으로 분류되는 원적외선은 물질에 흡수될 때 인체 내 세포를 구성하는 수분 등 분자에 영향을 줘 분자를 진동시키기 때문에 세포의 생리작용을 활발하게 한다.

또 물질 내부의 열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세포속에 유해물질을 내보내는 효과도 있다.

황토방은 이런 원적외선의 흡수와 방출을 조절하여 인체의 원적외선을 적절하게 조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효과는 다음과 같다.

- 혈액의 흐름을 촉진한다.
- 발한작용을 한다.
- 통증을 완화한다.
- 수은, 카드뮴, 구리 같은 중금속등을 땀으로 내보낸다.
- 탈취, 방충효과가 있다.
- 식물을 잘 자라게 하며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을 한다.
- 제습효과가 있고 곰팡이의 번식을 막는다.

옛 한방 의학서인 “동의보감” “왕실양명술” “금계요략”에도 황토의 치료와 효과가 적혀 있다.

특히 약재의 황토를 정화력과 분해력을 응용해 약재에 황토를 섞으면 제거되고 동시에 약의 효과가 높아진다고 한다.

그리고 황토는 다른 질병보다도 부인병, 위장병, 알레르기성 질환, 갱년기 질환, 근육관절통에 효과가 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황토를 치료 차원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옛날 것이 좋다”는 것은 어설픈 모방이 아닌 전통 그대로를 복원하고 따르는 것이라며 “흙이 죽으면 사람도 죽습니다.

옹달샘이 점점 줄어들어는 것도 바로 흙이 죽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온갖 공해로 몸의 기(氣)가 쇠해 버린 현대인에게 는 그래서 흙을 통한 기(氣)충전이 필요한게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전문가의 한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이원섭씨(63)는 말한다.

원래 모든 먹을 거리는 날로 먹었을 때 영양분을 100%섭취할 수 있으나 인류가 음식을 불로 익혀 먹는 법을 배우고 난 후부터는 20~30%밖에 영양흡수를 하지 못했다. 그런데 황토로 음식을 익히면 소모되는 영양분이 최소한도로 줄어든다.

또 황토속의 각종 미네랄 성분이 음식에 속속 배어 들어 맛과 영양이 뛰어나다.

이렇듯 흙을 살리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황토방의 보급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온돌시공협회는 노력할 것이다. ☯

### ◆국내에서 황토가 좋기로 유명한 곳◆

1. 안면도 중장리 송림부근 양지바른곳의 황토
2. 남한산성 동쪽의 적송림부근의 양지바른곳의 황토.
3. 변산반도 송림부근의 황토.
4. 홍성 흥동면 수관리 부근의 서향언덕 황토.
5. 경주 토함산자락 사들이 등성이의 동향 마사 황토
6. 하동군 청학동 악양 일대의 정동향 언덕 버랑의 황토.